

# 주부신행담

## 시련을 넘어서 ㉔

**97**년 11월 28일, 겨울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 어느날 여동생이 결혼 6년만에 아이를 낳았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건강하고 예쁜 아이였다. 외아들에게 사립간 여동생은 결혼하고도 4년여 동안 태기가 없어 여간 걱정이 아니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부처님과 인연 덕분이라 믿는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낯상 짙어 가 불공을 드리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동생은 3년 전부터 절에서 불공을

어머니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 길로 어머니, 아버지는 절에 가 스님을 뵈고 스님이 주시는 차를 드셨다고 한다. 그 차를 꾸준히 복용한 덕분인지, 아니면 스님이 주시는 차니까 나올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마신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병은 차차 좋아지셨다. 우리가족 모두는 모টে게 부처님의 영험이라 믿었다. 늦게 배운 도독질이 무섭다는 말도 있듯 어머니는 부처님께서 아버지 병을 낫게 해 주셨다며 열심히 절에 다니셨다.

없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살면서 많이 변했고, 나역시 동생들 때문에 순종적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사는 동안 내 인생은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다. 결국 견디다 못한 나는 중학교를 3번이나 옮긴 끝에 겨우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는 그나마 마치지도 못했다. 감정고시를 봐서 합격하면서 겪은 나의 삶은 동생들과 살아야만 한다는 처절한 현실뿐이었다. 날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원망하고 어찌에 지어진 짐을 함들어왔다. 87년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과에 합격, 어렵게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게 내 삶의 유일한 돌파구라 생각했다. 학교에서 만난 진이라는 친구로 인해 절에도 다시 나가기 되었다. 예전의 구복적 신앙이 아니라 정법을 알고자 노력했다. 조계사법회, 구룡사법회, 화계사법회 등 시간만 되면 틈틈히 서울의 여기저기 큰 사찰을 찾아다녔고, 도선사형년

# 고난속 방송대 합격...내 삶의 유일한 돌파구였다

드렸다. 지극한 기도 덕분인지 태기가 있어 지금의 조카를 보게 됐는데 10여 년이 지나도 아이를 얻지 못해 실의에 빠지고 심지어는 이혼하는 부부들을 생각하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23년 전의 일이다. 1979년 부처님오신날 우리 가족은 동두천 선양사에서 오랫동안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오랫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셋방에서 죽게 할 수 없다며 술장사도 마다하지 않았던 엄마, 엄마는 썩대밭이 된 집안을 일으키겠다며 이사를 하셨다. 이사 간 앞집에는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우리 집안 사정을 들으시고는 의외의 제안을 하셨다. "얘기야바 약 먹어서 나올 병 같지 않은데, 내가 다니는 절에 한번 가 볼라유."

그런데 부처님 오신날이 지난 지 꼭 20일 되던 날 청진백력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돌아 가셨다. 갑자기 쓰러진 후 5시간만에 어머니는 35세라는 나이로 '신경성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생을 마감하셨다. 내 나이 17살, 막내가 6살이었다.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부처님이 원망스러웠다.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돌아 가셨다고 생각했다. 그 후 나는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만 절에 가고 일체 가지 않았다. 원망이 증오까지 이어졌던 것 같다. 새 어머니가 들어오자 집은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병든 엄마의 자리를 새어머니가 대신 채울 수는 없었다. 그때의 현실이란 정말 끔찍했다는 기억밖에 남은게

법회에 나가 불교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불교세계를 알게 되었다. 찬불가를 부르면서 가슴벅찬 눈물을 여러번 흘렸다. 공부도 국문학이 불교에서부터 비롯했다는 의롭듯한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재미를 더했다. 그러나 학비 4만~5만원이 없어서 등록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집에서는 시집이나 가지 무슨 공부냐며 도울은 커녕 인정하러 동지도 않았다. 그땐 8.25에 조실부모해 함께 살면서도 우리 4남매만큼은 끔찍하게 여기셨던 어머니 생각이 더욱 뼈에 사무쳤다. 시련의 시간들이었다.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 7년만에 졸업을 했다.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학사모를 쓴 것이다. 그땐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후



그림 · 문병성


대의 권유로 보험회사에 입사했다. 다행히도 글을 쓸 수 있는 보직을 맡아 하면서 4년동안 보험설계사 일을 했다. 94년 신입사원으로 들어 온 형준이 엄마를 만나면서 직장생활하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불교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해 7월에는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11월에 가정을 꾸렸다. 시집이라고 한 곳은 보잘 것이 없었다. 그 당시 월급 중반에 계셨던 시어머니는 답답리 더 쓰러져 가는 150만원 짜리 전세집에서 수도도 없고, 개인 화장실도 없이 공공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셨다. 서울에 이런 곳이 또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잘 살아 보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남편이 회사에서 돈을 벌어도 그때 있던 돈과 보태서 방을 얻기로 하고 우선 남편과의 달콤한 신혼도 포기하고 시어머니랑 한 방에서 살았다. 그런데 남편은 12월 말일이 되었는데도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더니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이었다. 결혼한지 겨우 한달 지났는데 이제와서 무슨 소린지, 영문을 모를 일이었다. 김형진(서울시 서대문구 북변동)

# 마하몰 ... 추천 상품 특선

☎ 02) 732-1522 (직)  
02) 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 수입 만다라 옥침



수입만다라옥침은 두개의 최전구 표면에 각각 약 300여개의 표족한 옥침과 내부에 강력한 영구자석과 천연옥을 합성시켜 원적외선과 자기력을 발생하도록 만들어 졌다. 수입만다라옥침으로 손바닥의 경혈을 자극함으로써 호파는 수지침과 동일하며 옥과 자석의 상승작용으로 그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가 격 : 30,000원  
■재 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화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 영남범음범패집 1 재대령(비디오) 영남범음범패집 2 관옥



이 비디오는 인간문화재 어장(漁丈) 문구암(文九菴) 스님의 영남범음범패집의 소리와 그 의문점으로 출판된 영남범음집(靈山梵音集)을 한대륙은 것이다. 영남범음범패집의 방대한 소리들 중 일차로 천도재(薦度齋)에 널리 쓰이는 대령, 관옥 부분을 먼저 제작하였다.

■가 격 : 각 25,000원

### 비른자세 건강방식 참선명상방식




바른 자세가 건강한 정신과 편안한 마음을 만듭니다. 현대인들의 척추보호 및 교정을 위하여, 오랜시간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이젠 바르게 허리띠고 건강하게 생활하십시오.

■가 격 : 27,000

사이즈 - 가로 43cm X 세로 33cm  
실용신안 특허 공개 실 1999-025009  
의정부특출출원 제 14387호

###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발우



여기 이 황토 질그릇 발우는 순수한 황토와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이 아닌 낙엽 태운 천연유약과 1300도 불의 조화로 형성된 투박하고 자연적인 용기로써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본 제품은 해인사 용원의 청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외발우(瓦鉢盂)이다.

■가 격 4합 : 6만원 - 무게 2.7kg  
2합 : 3만원 - 무게 1kg


### 옥 베 게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동의보감 신침(神枕) 비방 한방 베게란? 藥製神枕(藥製神枕)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황제에게만 비방 전승되어 온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약을 잔나무 함에 넣은 베게로서 1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면 체내에 모든 병이 개선되어 몸에서 힘이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뼈절기가 다시나며 어목(耳目)이 청명해진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가 격 : 1개 30,000 (한세트 56,000)

### 향혜거사 달마도 병풍(양면)



달마도의 신비한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향혜거사 화맥이 직결된 작품을 재료비에 지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보내드리니 불자님들과 스님께서는 좋은 포교방편의 선물용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기 가로 360cm X 세로 182cm (6축)  
·저질 고급 비단 포구(양면)  
·뒤쪽 반아실경

■가 격 : 980,000원



제주도 보광사 불상 · 달집

불사의 천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불사에 관련해 문의 주시면 청정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대한불교예술원

오랜 전통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작품만을 고집해온 대한불교예술원이 불교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 佛事 시공 전문업체

- 조각부 - 불상, 사천왕, 산신상, 목탱화
- 목공부 - 수미단, 달집, 경각 외
- 건축부 - 전통 건축, 현대식 건축 (조절약형) 임시법당
- 석공부 - 불상, 석등, 부도, 탑
- 화공부 - 단청, 탕화, 담채



서울 석림사 목탱화 법당

대한불교예술원 대표 한성용 합장

공장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무봉리 545-5  
TEL : 02)930-1681, 0357)542-1681 FAX : 0357)543-3296 H.P : 011)336-5200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수성동 원당빌딩 201호  
TEL : 02)736-9948